

북한산에 눈이 멀다

《북한지》와의 운명적 만남

심 산 | 시나리오 작가

최 근 몇 년간 나는 사랑에 빠져 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 못지 않게 싫증내지는 데도 일가견이 있는 나의 뒤편이를 아는 친구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피식 웃는다. 그러나 사실이다. 언제나 눈앞에 두고 있지만 늘 그리워하고, 어쩌다 눈 밖에 나면 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태를 하고 계실까 궁금해 남 몰래 속을 앓는다. 사랑도 이쯤 되면 중병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 세속의 연인이라면 벌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도 남았을 텐데, 다행히도 그 대상은 세속과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존재다. 내 작은 품안에는 안을 수 없는 존재여서 소유욕이며 질투 따위는 아예 꺼낼 엄두도 못낸다. 님은 언제나 무심하게 그곳에 있고 나는 다만 가끔씩 그 품안에서 흡족하게 노닐다 돌아올 뿐이다. 그 님은 북한산이다.

북한산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민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 유달리 산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우리 4형제를 데리고 산에 오르곤 했는데, 당시 백운대의 칠난간을 붙잡고 킁킁대며 오르던 기억이 지금도 아스라히 남아 있다. 대학시절 나의 님은 지리산이었다. 반란의 고향이라는 명성 그대로 지리산은 현실 투쟁에서 패퇴한 나와 내 동료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 같은 산이다. 북한산이 내게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온 것은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암벽등반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바들바들 떨며 서투른 오름길을 거듭한 끝에 처음으로 인수봉 정상에 섰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새롭다. 그날 이후로 북한산은 나의 연인이다.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그 넓고도 깊은 속내는 제 그릇의 한 귀퉁이 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게 된다던가? 거의 매주 북한산을 누비고 다닌 최근 몇 년간 나는 북한산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치는 대로 긁어모아 책장이 너털너털해지도록 읽고 또 읽는다.

개관서로는 《북한산》(박인식)과 《북한산성》(조면구)이 좋다. 대원사의 명품인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들은 북한산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한번 폭넓게 조망해보는 데는 그만이다. 《북한산 가는 길》(박창규, 평화출판사)은 좀더 실용적이다. 북한산의 등산로들을 그 다양한 색갈까지 거의 포괄하고 있는 등산안내서인데, 안전제일을 주장하는 지은이의 산행관을 그대로 반영해 암릉이나 암벽길은 제외돼 있다. 암벽길만을 집대성해놓은 저서로는 역시 《바윗길》(한국등산학교동창회, 인왕출판사)이 클래식으로 꼽힌다. 그러나 암벽등반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상형문자를 모아놓은 책이나 다름없다. 《북한산 국립공원 환경해설》(국립공원협회, 대한문화사)은 환경과 야생화 등을 다룬 부분이 불 만하고, 《북한산의 불교유적》(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은 불교유적에 관한 한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다. 이 모든 책들은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추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장점과 단점을 지닌 채 북한산을 이야기한다. 북한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는 호쾌한 응변이요 감미로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운 속삭임이다. 그러나 북한산을 다룬 최고의 책을 단 한권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북한지(北漢誌)》(성능, 1745)를 꼽는다.

성능은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불교계의 지도자로서 당시 '팔방도 승통 겸 팔도도총섭'이라는 중책을 맡아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그 내실을 다지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승려다. 《북한지》는 그가 30여년간을 북한산에 머물면서 북한산성의 축조와 관련된 사실을 비롯해 산봉우리와 계곡·궁전·사찰·고적 등에 대해 14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름하여 '북한산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책인데, 워낙 오래 전에 출간된 책이라 극소수의 학자들 사이에서만 회람돼 오던 차에, 지난 1993년 범우사의 발행인인 윤형두씨가 자신의 소장본을 옛모습 그대로 영인해 500부 한정판으로 재출간한 덕에 나 같은 일반인들도 이 소중한 책을 간직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됐다. 참으로 감격스럽고도 고마운 일이다. 더 나아가 범우사에서는 이태 후 《북한지》에 대한 상세한 증보여주를 덧붙인 《북한산 역사지리》(김운우)를 펴내니, 한자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나 같은 천학비재들도 이 아름다운 옛 책을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음미해볼 수 있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됐다.

사랑에 빠진 자는 눈이 먼다. 나는 이 범우사판 《북한지》를 손에 넣던 날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어떤 책을 구입해 그 첫장을 넘길 때 그토록 가슴 설레고 흥분했던 기억은 따로 없다. 사랑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빛바랜 일기장을 송두리째 넘겨받았을 때의 감격이라고나 할까? 나는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흥분과 환희에 휩싸였고, 어서 빨리 끝까지 읽고 싶다는 조바심과 너무 빨리 읽는 대신 한장 한장 곱씹으며 읽어야만 될 것 같다는 아까운 마음 사이에서 황홀한 방황을 계속했다. 《북한지》를 읽으면서 나는 조선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백제 건국기의 고대사까지 섭렵하는 즐거움을 깨달았고, 왜 진작 좀더 한자공부를 해두지 않았던가를 한탄했다. 급기야는 언제나 이 책

을 내 시야가 닿는 곳에 펼쳐놓고 싶다는 미련한 욕심까지 생겨 한권을 더 구한 다음 그것을 액자로 만들었다. 《북한지》를 펼쳐들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3장으로 구성된 <북한도>(北漢圖)라는 목판화인데, 나는 이것을 한장으로 이어붙여 멋진 액자에 담은 다음 내 집의 거실 벽 한 복판에 걸어뒀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제1장 '도리'(道里)부터 제3장 '산계'(山谿)까지도 역시 한장으로 이어붙여 액자에 담은 다음 집필실에 걸어뒀다. 아무리 까막눈이라도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어서 이제는 그 본문들을 줄줄이 다 읽는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시대 한 선비의 문집에 나오는 문장인데, 유흥준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창작과비평사)의 서문에 인용함으로써 대중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금언이다. 북한산과 《북한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꼭 이렇다. 북한산을 사랑한 까닭에 《북한지》를 알게 됐고, 《북한지》를 읽은 까닭에 북한산을 달리 보게 돼 그 사랑이 더욱 깊고 넓게 됐으니, 책 한권으로 이토록 행복해지기는 드문 경험이라라.

"오래된 바위 앞에서 전생을 떠올리며, 산이 깊어 종일토록 바라본다"(石老前生憶, 山深盡日看). 북한산의 산영루(山映樓)에서 읊은 추사(秋史)의 시인데 《추사 김정희 시전집》(풀빛)에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산은 늘 내 시야를 떠나지 않는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서강대 교를 건너는 출근길에는 뿌연 서울 하늘 너머의 북한산을 보고, 종일토록 머무는 노고산 언덕의 집필실에서도 역시 북한산의 수리봉과 향로봉, 그리고 보현봉이 보인다. 이제 《북한지》의 <북한도>가 있어 집에 머무는 시간에도 북한산을 본다. 덕분에 매일 매일을 추사의 시귀처럼 살 수 있게 해준 《북한지》에 감사할 따름이다.●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dp

design partner **darum**

더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는
다름의 새얼굴입니다

이제 막산 하나를 넘은 듯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노력이
더 큰 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른 다름의 시작입니다.
새마음, 첫마음의 각오로 다름이 도약합니다.

다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